3/ 1950년대 일본의 ‘특수’(特需)와 냉전구조*

정진성

❶ 집적된 155mm 포탄, ❷ 1951년 3월, 전선을 시찰하는 맥아더 원수. 뒷좌석에는 리지웨이 중장(왼쪽)과 GHQ 경제과학국장 마쿼트 소장, ❸ 전선 후방에 집적된 탄피의 산

출처: 藤井 非三四, 「日本列島と朝鮮半島(2)日本の復興をもたらした朝鮮特需」, 『軍事研究』 第48巻 第6号 (2013. 9.)

정진성(丁振聲)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역서로는 『일본경영사: 일본형기업경영의 발전-에도에서 현재까지』(한울, 2001)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重要産業統制法下における石炭独占組織の市場統制政策」(『社会経済史学』 59巻 4号, 1993), 「高度経済成長期の石炭産業調整政策: 生産維持と雇用調整を中心に」」(『社会経済史学』 72巻 2号, 2006), 「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의 반기업 정서」(『日本研究論叢』 제27호, 2008) 등이 있다.

* 이 연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년도 1분기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https://doi.org/10.29154/ILBI.2020.22.74

1. 머리말

1950년대 일본에 발생한 특별 수요(special procurement, 이하 특수로 줄임)는 냉전 구조 하의 후방기지로 편입된 일본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다. 특수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전략과 그것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 커미트먼트(commitment)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특수는 일본과 미국의 "군사관계와 경제관계의 결절점(結節点)"[1]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특수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단지 특수가 일본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냉전하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구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수는 한국전쟁의 발발에 따라 미군이 한국 전선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일본에 발주함으로써 발생한 특별수요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한국 전선에서 사용되는 물자·서비스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한국전쟁의 종료, 일본의 독립,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해가면서 1960년대까지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의 특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1960년 이후 달러방위정책에 따른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 및 1950년대의 일본경제의 고성장으로, 1960년대에는 특수가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게 저하했기 때문이다.

종래의 특수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년대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크게 특수의 경제적 효과, '일미경제협력'[2] 구상하에 한국전쟁 특수에서 '신특수'로의 이행 과정, 병기 특수와 일본의 군수산업의 부활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구적 연구로는 한국전쟁 특수의 중요성을 특히 국제수지의 천정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강조한 나카무라 다카후사(中村隆英)의 연구가 있다. 나카무라에 따르면,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일본의 경

1 浅井良夫,「1950年代の特需について(1)」,『成城大学経済研究』158, 2002, 221쪽.

2 '일미경제협력'은 당시 일본의 정부, 언론, 재계 등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미일경제협력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제성장률은 수입(輸入) 규모에 의해 제약 받는데, 한국전쟁 특수에 따른 거액의 외화 수입(收入)으로 당시의 일본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3]

나카무라는 한국전쟁 특수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고도성장으로 연결되는 구체적 경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고사이 유타카(香西泰)는 한국전쟁 특수를 합리화정책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4] 고사이에 따르면 합리화투자야말로 다음의 고도성장을 준비하는 것이며 테이크 오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정부가 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합리화투자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특수의 존재 때문이었다. 산업합리화정책은 특수로 국제수지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이를 이용한 과도적 정책이었으며,[5] 고도성장을 준비하는 합리화투자의 실시에서 한국전쟁 특수는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6]

한편, 특수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시도로서 요네자와 요시에(米澤義衛)의 연구가 주목된다.[7] 그는 1951년의 특수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여, 특수의 직접적, 간접적(파생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모델의 경우, 특수가 없

3 나카무라는 수입액 증가와 GNP 증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치로 설명했다. "국제수지의 천장이 높아지고, 수입의 대 GNP 비율이 저하한 것은, GNP 증가의 상한이 높아졌음을, 즉 성장률 상승의 가능성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GNP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이 12%이고 수출만으로 수입을 충당한다면, 수입액 상한이 13억 달러일 경우, GNP 상한은 108억 달러(13÷0.12)에 불과하지만, 8억 달러의 특수 수입에 의해 수입액이 21억 달러로 증가하면, GNP 상한은 175억 달러 (21÷0.12)로 약 1.6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기의 일본의 급격한 회복과 성장은 이 메커니즘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中村隆英, 『日本経済: その成長と構成「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1993, 158쪽).

4 香西泰, 『高度成長の時代』, 日本評論社, 1981; 「高度成長の出発」, 中村隆英 編, 『日本経済史7 「計画化」と「民主化」』, 岩波書店, 1989.

5 香西泰, 「高度成長の出発」, 291쪽. 여기서 '과도적'이란, 특수로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간을 이용했다는 의미다. 특수가 없었다면 일본은 엔의 평가절하나 긴축정책에 의해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할 수밖에 없으나 특수의 존재로 그러한 정책 선택이 아니 산업합리화정책, 즉 "근대화투자에 의해 국제수지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6 합리화투자에서의 한국전쟁 특수의 역할은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이무라(井村)도 지적하고 있다(井村喜代子, 「"1949年秋～朝鮮戦争"と"合理化投資"(上), (下)」, 『三田学会雑誌』, 第80巻 第4号, 第81巻 第1号, 1987, 1988).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 붐으로 획득한 외화와 기업이윤을 이용하여 중화학공업의 '근대화·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국가정책의 체계적 정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중요 기초산업에서 전후 최초의 합리화투자가 실현되었다.

7 米澤義衛, 「朝鮮特需の産業連関分析」, 『青山經濟論集』 第45巻 第4号, 1994.

었다면 부가가치 감소율은 5.04%(특수가 모두 타국 기업에 발주되었을 경우)에서 6.25%(한국전쟁이 애당초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1951년의 경제성장률이 12%였으므로,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7% 혹은 6%대로 하락했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요네자와는 한국전쟁 특수가 없었다면 일본경제가 다지(Dodge) 라인에 의한 불황을 타개하고 부흥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일미경제협력' 구상하에서 '신특수'로의 이행에 관한 선구적 연구 역시 나카무라에 의해 이루어졌다.[8] 나카무라는 1951년 1월에서 1952년 4월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하 평화조약으로 줄임) 발효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던 일미 간의 경제협력을 둘러싼 논의를 추적하여, '일미경제협력'의 결과로서 전시기의 응급 '특수'에 필적하는 수준의 병기중심의 '신특수'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했다.[9] 아사이 요시오(浅井良夫)는 나카무라의 연구성과를 이어받아 '일미경제협력' 구상의 실체의 부분과 기대의 부분을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도했으나, 연구가 1951년 5월 마쿼트(William F. Marquat, GHQ 경제과학국장) 성명의 내용 및 그것의 파장을 분석하는 것에서 중단됨에 따라 '기대의 부분'의 분석에 그치고 말았다.[10] 따라서 일미경제협력 구상에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신특수로 실현되었는지 등에 관한 '실체의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기 특수와 일본의 군수산업에 관해 남기정은 병기 특수의 발생 과정을 분석하여 당시의 특수가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의 잠재적 군수생산력을 복원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강조했다.[11] 그러나 병기 특수

8 中村隆英, 「日米『経済協力』関係の形成」, 『年報 近代日本研究』 4, 山川出版社, 1982.

9 中村隆英, 「日米『経済協力』関係の形成」, 296쪽.

10 浅井良夫, 「1950年代の特需について(1), (2), (3)」, 『成城大学経済研究』 158, 159, 160, 2002~2003년.

11 남기정, 「한국전쟁 시기 특별수요의 발생과 '생산기지' 일본의 탄생: 특별수요의 군사적 성격에 주목하여」, 『韓日軍事文化研究』 제13집, 2012. 남기정은 무기 생산 재개를 통해 특수경기의 혜택이 보다 광범위한 저변으로 확대하고 고용 증대 효과를 낳았으며 미일경제의 유착구조가 형성되어, "일본이 동아시아 냉전 시스템 속에서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기초는 여기에서 마련되었다"(275쪽)고 주장했다. 이것은 특수 전체에 대한 평가로서는 적절할지 몰라도 1952~1955년의 짧은 기간에만 존재했던 병기 특수에 대한 평가라면 과장된 것이다. 한편 남기정은 「제3장 특별수요의 발생: '생산기지' 일본」(『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에

가 일본의 군수생산 부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었다. 아리타 후미코·나카무라(有田富美子·中村隆英)에 따르면, "일미의 '경제협력'이 남긴" 병기 중심의 신특수는 195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4년에 피크를 이룬 후 1955년에서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고마쓰(小松)제작소나 고베(神戸)제강소와 같은 대기업도 각각 안정적 수요가 있는 득의의 분야에 주력하고 병기 생산은 주변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12] 사와이 미노루(沢井実)는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레벨에서의 병기 특수의 발생과 소멸의 의의를 분석하여, 병기 특수는 일본의 군수산업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병기 특수의 소멸로 병기제조업체에서의 군수산업은 방위청의 발주에 의존하는 주변적 사업으로 축소되었음을 밝혔다.[13] 이상의 병기 특수와 관련된 연구는 1952~55년에 집중된 탄약류 중심의 병기 특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1950년대 후반의 미국의 군사원조와 관련되어 발생한 항공기, 구축함, 군용 차량 등의 특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년대 초기의 특수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된 데에 비해, 한국전쟁 종료 후부터 1950년대 후반에 발생한 특수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기에 특수 규모가 감소된 반면 일본의 경제규모는 고도성장의 개시와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특수의 경제적 의의가 1950년대 전반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 그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특수 수입은 1950년대 후반에도 4~5억 달러 대를 유지하여 여전히 중요한 달러 획득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의 존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및 일본의 동아시아 진출이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 원조물자의 역외조달(域外調達)을 통해 새로운 특수 수입 확

서 앞 논문의 내용에 추가하여, 일본 외무성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전쟁의 정전이 가시화되는 시기의 외무성에 의한 한국정세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전쟁의 휴전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이 일본정부의 중대 관심사의 하나였다.

12 有田富美子·中村隆英, 「戦後兵器産業の再建過程」, 中村隆英·宮崎正康 編, 『岸信介政権と高度成長』, 東洋経済新報社, 2003, 52쪽.

13 沢井実, 「特需生産から防衛生産へ: 大阪府の場合」, 社会学編, 『アカデミア』 第14号, 2018.

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여전히 깊숙이 커미트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 이 글은 한국전쟁 진행 중에 발생한 특수만이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구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종료 이후부터 1950년대 후반에 발생한 특수도 시야에 넣어, 1950년대의 특수가 당시의 냉전구조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종료 이후의 특수의 구체적 내용의 파악은, 통산성기업국특수과[通産省企業局特需課, 1954년 3월부터는 기업국배상특수실(企業局賠償特需室)]가 발간한 『특수조사』(特需調査)라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했다. 『특수조사』는 1952년 7월 발간의 제1호부터 1969년 12월 발간의 제214호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시기에 따라 약간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매월의 특수 계약액, 특수 수입액의 통계와 특수 계약의 건별 내용, 특수와 관련되는 국내, 국외의 동정에 대한 보고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가 미국의 대외정책과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미국의 예산이나 원조정책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14]

2. 특수의 개관

1) 특수의 정의

전술한 바와 같이 특수는 한국전쟁의 발발에 따라 미군이 한국 전선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일본에 발주함으로써 발생한 특별수요를 의미했지만 이후 한국전쟁과 직접 관련 없는 다양한 내용도 포함하게 되었다.

14 이 자료의 이용을 허락해 준 강릉원주대학교의 여인만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이 자료는 1969년 발간분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발견한 슈토대학(首都大学) 야마사키 시로(山崎志郎) 교수에 따르면, 1969년으로 발간이 중지된 것인지 또는 계속 발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 자료에 의해 한국전쟁 종료 이후의 특수의 구체적 내용(계약액, 수입액 규모와 그 구성)만이 아니라, 통산성의 특수에 대한 정책 방침, 미국의 원조계획과 특수의 관련성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특수의 규모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던 특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수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에는 '협의의 특수'와 '광의의 특수'가 있다. '협의의 특수'는 재일미군 및 관계기관이 일본에서 직접 물자·서비스 발주를 하여 외화(주로 달러)로 지불하는 수요를 말하며, 이에 관한 통계는 특수 계약액(원문은 특수 계약고)으로 미국대사관경제부에서 매주 발표되었다.[15] 미군 및 관계기관의 물자·서비스 조달기관으로서 1950년 8월 25일 재일병참사령부(Japan Logistic Command, JLC)가 설치되었다.[16] 단, 일본의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 조달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1952년 10월부터는 물자조달부(General Supply Administration, GSA) 산하 긴급조달국(Emergency Procurement Service, EPS)[17]의 조달, 1954년 1월부터는 유엔 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의 조달로 발생한 수요도 협의의 특수에 포함하여 특수 계약액이 발표되었다. EPS에 의한 물자 조달은 미국의 원조자금에 의한 한국, 타이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된 것으로 원래 협의의 특수와는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다. UNKRA는 1950년 12월 1일 설립되었으나, 실제의 활동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그 조달물자는 기구의 성격상 모두 한국재건을 위한 물자였다.

1952년 4월의 평화조약 발효 후에는 일미행정협정 25조에 의거해 일본에 주류하는 외국 군대 유지를 위해 일본정부가 지출하는 방위분담금에 의해 지불되는 계약도 특수 계약액에 포함되었다.[18] 이 방위분담금에 의해 지

15 1952년 4월까지는 SCAP 경제과학국 계획통계과 집계, 그 후 1953년 9월까지 미국대사관 경제부 조달개발과의 집계, 그 이후는 미대사관 자료에 근거하여 일본은행 외환관리국통계과에서 집계했다.

16 1951년 11월 14일 JLC의 부속기관으로 주일조달본부(Japan Procurement Agency, JPA)가 설치되었으며, JPA는 1957년 1월 재일미군조달국(Army Procurement Agency, APA)으로 재편되었다. 미군의 물자 조달은 대부분 JPA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일부는 공군 및 해군 기관에 의해서도 조달되었다.

17 EPS는 1956년 12월에 FSS(Federal Supply Service)로 개칭되었다.

18 평화조약 발효 전 일본에 주류하는 점령군이 조달하는 물자 및 서비스는, 특별조달청에서 일본이 부담하는 '종전처리비'로 처리되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한국전쟁을 위한 미군의 직접조달과 종래와 같은 특별조달청을 경유하는 간접조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952년 4월에 평화조약 발효 후에는 점령군 유지경비 일부의 미국 부담 방침이 결정되어 이후 일미안전보장조약 제3조

불되는 계약은 엔(円)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통칭 '엔 베이스 계약'으로 불렸다. 엔 베이스 계약은 1957년도부터 방위분담금이 제1차 방위력정비계획으로 인계됨에 따라 특수 계약액으로 잡히지 않는다. 엔 베이스 특수는 엔화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획득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다.

'광의의 특수'는 일본은행의 외환(外国為替)통계에서, '정부거래' 중 '외국군 및 기타 기관 관계 소비' 및 '재일불군(在日佛軍) 매입 미션에 대한 엔 매각'으로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9] 통산성에서는 같은 내용을 특수 수입액(원문은 특수 수입고)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엔 세일, 미군 예금납입, 오키나와 건설대금, ICA, UNKRA, 기타 미군 관계, 영국군 관계 항목으로 되어 있다. '광의의 특수' 또는 특수 수입액은 요컨대 외화(주로 달러) 수입이 있는 조달을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특수 계약액에 포함되어 있는 엔 베이스 특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 수입액 각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20]

① 엔 세일: 미군이 발행한 수표와 교환하여 미군 지정은행(미국계 은행 일본지점)이 엔을 매각한 금액을 지칭한다. 이렇게 미군이 취득한 엔은 주로 미군, 군속, 그 가족의 개인소비로 사용된다.

② 미군 예금납입: 미군 각부대가 일본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에 있는 당좌예금계좌에 미정부 수표를 납입하여 엔화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엔화로 미군지출관이 미군이 조달하는 물자·서비스 대금을

에 근거한 일미행정협정 25조에 따라 점령군 유지경비의 절반을 미국이 달러로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일본정부가 엔으로 미군에 교부하게 되었는데, 이 교부금을 방위분담금이라 했다. 최초의 방위분담금은 558억 엔(1억 5,500만 달러)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매년 방위분담금의 금액 결정을 둘러싸고 일미 간에 분규가 일어났다. 1957년도부터 방위분담금은 제1차 방위력정비계획으로 인계가 되고, 1960년도 이후는 새로 체결된 안보조약 및 행정협정에서 분담금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소멸되었다.

19 経済安定本部,「特需に関する統計」, 総合研究開発機構(NIRA) 戦後経済政策資料研究会 編,『経済安定本部 戦後経済政策資料 第26巻 貿易·為替·外資(3)』, 日本経済評論社, 1995에 수록. 여기서의 '재일불군 매입 미션에 대한 엔 매각'은 재일 프랑스군 관련 특수인 것으로 생각되나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특수 수입액으로 발표되는 자료에는 재일불군매입 미션 관계의 항목은 없다.

20 通商産業省賠償特需室,『特需とアメリカの対外援助』, 通商産業調査会, 1961, 83~84쪽.

지불한다. 평화조약 발효까지는 미정부의 수표에 의해 직접 일본업자에 지불되었으나, 평화조약 발효 후 일본은행 본·지점에 엔 표시의 미군 명의 당좌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이 계좌를 통해 특수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졌다.

③ 오키나와 건설공사대금 수취: 일본의 업자가 오키나와기지 건설공사를 청부받음으로써 획득한 외화를 엔화로 교환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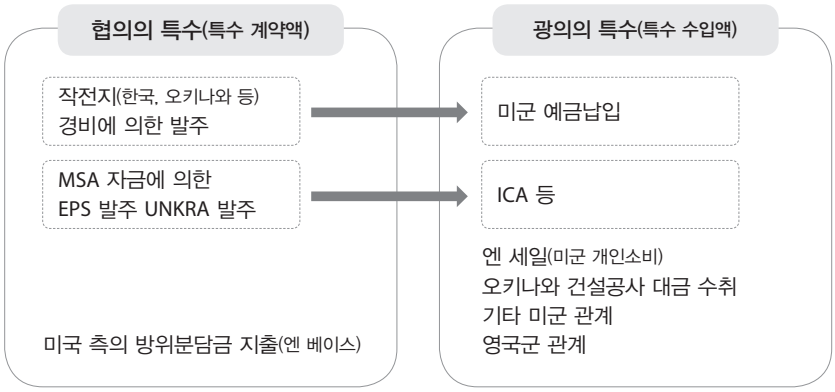
④ 기타 미군 관계: 재일 미국 극동군 이외의 지불 및 재일 국제연합 요원에 대한 개인 송금 등.

⑤ ICA 등: 미국원조자금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물자를 구입하여 피원조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 미국의 대외원조는 1951~1953년에는 상호안전보장청(Mutual Security Agency, MSA) 및 기술협력국이, 1953~55년에는 대외활동국(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FOA)이 관할했으나, 1955년 7월 이후 국무성 외국(外局)으로 설치된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이 경제기술원조를 소관하였다. ICA는 1961년부터 국제개발처(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로 통합되었다.

⑥ 영국군 관계: 영연방군 관계의 파운드 지불. 영연방군은 모두 엔 세일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관계 소비와 개인소비 쌍방이 포함된다. 영연방군에 대한 엔 세일은 1957년 폐지되었다.

'협의의 특수(특수 계약)'와 '광의의 특수(특수 수입)'는 그 내용이 복잡해 혼돈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그림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협의의 특수' 중의 '작전지 경비에 의한 발주'와 'MSA 자금이나 UNKRA에 의한 발주'는 각각 '광의의 특수' 중의 '미군예금납입'과 'ICA 등'에 포함된다.

'미군예금납입'에는 '작전지 경비에 의한 발주' 외에 조달청에 의한 노무 조달 등이 포함되며, 'ICA 등'에는 미군 및 미국 관계기관 외의 기관이 미국의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조달한 물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 측의 방위분담금 지출은 '광의의 특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 '협의의 특수'(특수 계약액)과 '광의의 특수'(특수 수입액)의 관계

2) 특수 계약액의 추이

특수 계약액(협의의 특수)은 1953년 약 4억 4,300만 달러를 피크로 하여 1954년에는 2억 3,7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준 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대체로 1962년까지 1억 달러 대에서 움직이다가 1963년부터 1억 달러를 하회했다(〈표 1〉). 특수 계약액은 거의 대부분이 미군의 발주에 의한 것이며, GSA나 UNKRA의 발주분은 매년 전체 물자 계약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21]

물자와 역무(役務, 서비스)의 구성비는 1960년까지의 합계로 볼 때, 물자 57.1%, 역무 42.9%이다. 역무 비중은 1952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1954년에는 전체 계약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전쟁이 종결 단계에 들어가면서 건설, 수리 등의 계약액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엔 베이스 계약은 1952년 7월부터 발생했는데, 1953년에 약 1억 2,000만 달러(총 계약액의 약 21%) 정도 발생했으나 1954년에는 약 1,800만 달러로

21 역무를 포함한 전 계약액에 대해서는 2% 대였으며, 1959년부터는 특수 계약액에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UNKRA의 발주금액은 1% 이하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으며 1955년 UNKRA의 폐지에 따라 1957년부터는 특수 계약액에서 사라졌다. GSA와 UNKRA의 발주분의 비율은 『특수조사』 각호의 '품목별 발주기관별 계약고'로부터 계산했다.

〈표 1〉 특수 계약액의 추이

역년*	금액(1,000달러)			구성비(%)		
	물자	역무	계	물자	역무	계
1950	127,327	64,029	191,356	66.5	33.5	100.0
1951	254,506	99,134	353,640	72.0	28.0	100.0
1952	205,373	117,149	322,522	63.7	36.3	100.0
1953	260,794	183,069	443,863	58.8	41.2	100.0
1954	104,727	132,693	237,420	44.1	55.9	100.0
1955	65,748	107,941	173,689	37.9	62.1	100.0
1956	68,757	95,743	164,500	41.8	58.2	100.0
1957	131,245	98,363	229,608	57.2	42.8	100.0
1958	67,392	76,120	143,512	47.0	53.0	100.0
1959	89,136	67,099	156,235	57.1	42.9	100.0
1960	93,340	63,822	157,162	59.4	40.6	100.0
1961	76,365	70,726	147,091	51.9	48.1	100.0
1962	67,781	48,597	116,378	58.2	41.8	100.0
1963	18,733	40,826	59,559	31.5	68.5	100.0
1964	23,035	27,079	50,114	46.0	54.0	100.0
1965	26,060	29,368	55,428	47.0	53.0	100.0
1966	60,012	47,427	107,439	55.9	44.1	100.0
1967	25,960	57,308	83,268	31.2	68.8	100.0
1968	25,519	61,175	86,694	29.4	70.6	100.0
1969	18,727	73,626	92,353	20.3	79.7	100.0

자료: 通産省, 『特需調査』, No.110(1960. 12.), No. 202(1968. 12.).

*역년은 그해의 1월부터 12월을, 연도는 그해의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의미함.

줄고 1955년 이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표 2〉). 엔 베이스의 계약은 전부 일본 재류 미군의 조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달러 베이스 계약에 비해 역무 비중이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엔 베이스 계약은 엔으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 획득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3) 특수 수입액의 추이

특수 수입액('광의의 특수')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1952~1953년에 8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한국전쟁 종료 후에는 1957년까지 5억 달러 대에서 움직

〈표 2〉 달러 베이스와 엔 베이스의 특수 계약액

금액(1,000 달러)

역년	달러			엔			합계		
	물자	역무	계	물자	역무	계	물자	역무	계
1950	131,511	61,062	192,573	0	0	0	131,511	61,062	192,573
1951	268,594	91,876	360,470	0	0	0	268,594	91,876	360,470
1952	161,366	71,250	232,616	20,182	40,949	61,131	181,548	112,199	293,747
1953	210,803	121,750	332,553	50,685	68,323	119,008	261,488	190,073	451,561
1954	119,702	117,430	237,132	3,229	15,131	18,360	122,931	132,561	255,492
1955	66,769	109,288	176,057	0	91	91	66,769	109,379	176,148
1956	69,260	97,202	166,462	0	26	26	69,260	97,228	166,488

구성비(%)

역년	달러			엔			합계		
1950	68.3	31.7	100.0	0.0	0.0	0.0	68.3	31.7	100.0
1951	74.5	25.5	100.0	0.0	0.0	0.0	74.5	25.5	100.0
1952	54.9	24.3	79.2	6.9	13.9	20.8	61.8	38.2	100.0
1953	46.7	27.0	73.6	11.2	15.1	26.4	57.9	42.1	100.0
1954	46.9	46.0	92.8	1.3	5.9	7.2	48.1	51.9	100.0
1955	37.9	62.0	99.9	0.0	0.1	0.1	37.9	62.1	100.0
1956	41.6	58.4	100.0	0.0	0.0	0.0	41.6	58.4	100.0

자료: 1950~1953년은 経済審議庁, 『特需に関する統計』.
1954년 이후는 通産省, 『特需調査』 No. 50(1956. 1.), No. 62(1956. 12.), No. 65(1957. 3.).

주: 합계의 수치가 〈표 1〉과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데, 1950~1953년은 인용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1954년 이후는 계약액이 아닌 발주액에 근거한 것에서 오는 차이로 생각된다.

이다가 1958년부터는 4억 달러 대, 1962년부터는 3억 달러 대로 감소했다(〈표 3〉). 특수 수입액은 1966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베트남전쟁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특수 수입액의 구성을 보면, 한국전쟁 진행 중에는 미군예금납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부터 엔 세일이 증가하여 1954년 이후는 엔 세일이 특수 수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것은 미군 발주에 대응하는 미군예금납입이 한국전쟁의 휴전에 따라 감소하는 한편, 정전 후 미군의 이동에 따른 미군 장병 일본 통과 시의 소비

〈표 3〉 특수 수입액의 추이

역년	금액(1,000달러)							구성비(%)						
	달러(미군 관계)				ICA등	파운드	합계	달러(미군 관계)				ICA등	파운드	합계
	엔 세일	미군예금 납입	오키나와 건설, 기타	소계		영국군		엔 세일	미군예금 납입	오키나와 건설, 기타	소계		영국군	
1950	110,187	38,256	446	148,889			148,889	74.0	25.7	0.3	100.0	0.0	0.0	100.0
1951	221,930	337,370	13,184	572,484	12,232	6,961	591,677	37.5	57.0	2.2	96.8	2.1	1.2	100.0
1952	271,476	503,607	15,202	790,285	16,194	17,689	824,168	32.9	61.1	1.8	95.9	2.0	2.1	100.0
1953	300,513	456,029	9,726	766,268	19,486	23,725	809,479	37.1	56.3	1.2	94.7	2.4	2.9	100.0
1954	292,779	245,837	20,169	558,785	16,454	20,925	596,164	49.1	41.2	3.4	93.7	2.8	3.5	100.0
1955	275,723	193,853	5,026	474,602	70,604	11,398	556,604	49.5	34.8	0.9	85.3	12.7	2.0	100.0
1956	273,779	187,265	6,135	467,179	124,280	3,908	595,367	46.0	31.5	1.0	78.5	20.9	0.7	100.0
1957	259,435	154,600	6,853	420,888	128,356	26	549,270	47.2	28.1	1.2	76.6	23.4	0.0	100.0
1958	207,535	163,498	9,210	380,243	101,319		481,562	43.1	34.0	1.9	79.0	21.0	0.0	100.0
1959	209,598	131,308	18,486	359,392	111,431		470,823	44.5	27.9	3.9	76.3	23.7	0.0	100.0
1960	215,903	173,000	5,951	394,854	147,274		542,128	39.8	31.9	1.1	72.8	27.2	0.0	100.0
1961	183,325	187,336	1,149	371,810	73,962		445,772	41.1	42.0	0.3	83.4	16.6	0.0	100.0
1962	201,070	165,054	342	366,466	9,629		376,095	53.5	43.9	0.1	97.4	2.6	0.0	100.0
1963	204,149	141,140	1,042	346,331	1,080		347,411	58.8	40.6	0.3	99.7	0.3	0.0	100.0
1964	210,996	111,428	940	323,364			323,364	65.3	34.5	0.3	100.0	0.0	0.0	100.0
1965	227,537	95,364	378	323,279			323,279	70.4	29.5	0.1	100.0	0.0	0.0	100.0
1966	309,036	159,893	1,065	469,994			469,994	65.8	34.0	0.2	100.0	0.0	0.0	100.0
1967	374,257	131,593		505,850			505,850	74.0	26.0	0.0	100.0	0.0	0.0	100.0
1968	417,271	169,174		586,445			586,445	71.2	28.8	0.0	100.0	0.0	0.0	100.0
1969	466,046	172,005		638,051			638,051	73.0	27.0	0.0	100.0	0.0	0.0	100.0

자료: 通産省企業局特需課, 『特需調査』 各号.

주: ICA 등에는 UNKRA 관계의 수입을 포함.

증가와 재한 미군 장병의 휴가에 따른 일본 본토 소비 증가로 엔 세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特需調査』 No. 25, 1953. 12.).

'ICA 등' 수입의 비중은 195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1960년에는 특수 수입액의 27.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는 16.6%로 감소하였고 1962년부터는 미미한 분량만을 차지하다 1964년부터는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것은 미국의 달러방위정책과 관련된 미국원조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3. 한국전쟁과 특수

1) 한국전쟁 특수

이상 1950년대의 특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특수가 모두 한국전쟁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부터 전투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전쟁 수행과는 직접 관련 없는 특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것에 대해 한국전쟁과 직접 관련되는 '조선특수'와 구별하여 '신특수'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다.

한국전쟁과 직접 관련되는 특수를 한국전쟁 특수라고 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였던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국전쟁 특수를 전체 특수에서 정확히 분리하여 그 규모를 추계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일일 것이다. 당시 조달된 물자가 한국전쟁 수행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일본이나 제3국에서 사용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어디까지를 한국전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는가도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전쟁 특수의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한국전쟁의 발발 시점에서 휴전 협정이 맺어진 1953년까지의 기간(1950년 6월 25일~1953년 12월)에 발생한 특수를 잠정적으로 한국전쟁 특수로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기

로 한다.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이 시기에 특수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특수 계약액은 약 13억 1,100만 달러로 1950~1960년의 총 계약액의 51%, 특수 수입액은 약 23억 7,400만 달러로 1950~1960년에 발생한 총 수입액의 약 39%에 해당된다.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특수 수입액 비율이 특수 계약액 비율보다 더 작은 것은 특수 수입액에는 전쟁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엔 세일과 ICA 관련 특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는 한국전쟁 발발 시점에서 1953년 12월까지의 특수 계약액의 품목별 구성비를 보여 준다. 물자 부문을 보면, 제1년차(1950년 7월~1951년 6월)는 섬유 및 직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수송기계와 금속제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제2년차(1951년 7월~1952년 6월)에는 금속제품, 섬유 및 직물, 수송기계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제3년차(1952년 7월~1953년 6월)와 제4년차(1953년 7월~12월)에는 금속제품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어서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컸다. 서비스부문은 '운수, 하역, 창고', '수리 및 개장', 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제3~4년차에는 '통신 및 기타 공익사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표 5〉는 1950~1953년의 계약액 합계가 1,000만 달러를 넘는 주요 세부 품목을 나타낸 것이다. 섬유, 직물제품 중에서 마대, 면포, 수송기계 중에서는 자동차부품, 트럭, 화차가 중요한데 특히 제1년차에 트럭 계약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속제품 중에는 '병기 및 동부품', 유자철선(有刺鐵線), 유자철조강주(有刺鐵造鋼柱), 건축용 강재 등이 주요 품목이었으며, 특히 '병기 및 동부품'은 제3년차에 크게 증가했다. 광물성 연료는 주로 석탄으로 제3~4년차에 크게 늘었는데, 주로 엔 베이스 계약이었다. 서비스부문에서는 '건물의 건설, 개장', '자동차수리', '하역창고', '전신, 전화'의 계약이 많았다. 이 중 '전신, 전화'는 제3~4년차에 집중되었다.

이상의 품목별 구성 추이에서 제2~3년차로 갈수록 광물성 연료, 약품류, 비금속광물제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관찰된다(〈표 4〉). 제2~3년차

〈표 4〉 한국전쟁기 품목별 특수 계약액의 구성과 추이 (%)

		제1년차 (1950년 7월 ~51년 6월)	제2년차 (1951년 7월 ~52년 6월)	제3년차 (1952년 7월 ~53년 6월)	제4년차 (1953년 7월 ~12월)	합계
물자	식료	3.2	0.5	2.1	11.0	2.6
	음료 및 담배	0.2	0.7	1.0	0.8	0.7
	원재료	3.5	5.3	5.1	1.9	4.5
	광물성 연료	3.2	6.5	15.8	25.5	10.2
	약품류	5.1	9.8	6.8	8.8	7.3
	고무제품	0.8	1.4	0.2	0.3	0.7
	목재제품	3.4	2.9	2.7	1.9	2.9
	종이 및 동 제품	0.5	0.6	0.9	1.1	0.7
	섬유 및 직물	27.2	18.2	9.3	2.3	16.4
	비금속광물제품	0.9	4.8	3.0	0.8	2.8
	제1차금속제품	4.9	7.2	8.4	3.4	6.7
	금속제품	15.9	18.4	30.7	25.0	22.5
	기계	1.5	1.6	1.7	1.3	1.6
	전기기계	4.0	2.9	2.6	4.4	3.2
	수송기계	19.1	12.3	3.9	6.0	10.8
	조립가옥, 수도, 난방, 조명용구	3.3	4.4	3.3	0.9	3.4
	의류 및 신발	2.1	1.9	1.5	0.2	1.7
	기타	1.0	0.8	1.3	4.3	1.3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1,000달러)	229,997	246,164	295,230	57,181	828,570
서비스	운수, 하역, 창고	39.8	31.2	15.9	22.4	25.2
	통신 및 기타 공익사업	4.8	5.9	22.5	26.0	16.5
	건설	11.3	19.6	25.9	19.8	20.3
	수리 및 개장	40.0	38.0	30.3	30.1	33.8
	미군원료에 의한 제조	1.6	2.1	0.2	0.0	0.8
	전문적 서비스	2.1	0.8	2.0	1.2	1.6
	기타 서비스	0.5	2.3	3.2	0.4	1.9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1,000달러)	98,927	85,356	181,196	101,433	466,912

자료: 経済審議庁, 『特需に関する統計』.

〈표 5〉 한국전쟁기 세부 품목별의 특수 계약액의 구성과 추이 (1,000달러)

상품	제1년차 (1950년 7월 ~51년 6월)	제2년차 (1951년 7월 ~52년 6월)	제3년차 (1952년 7월 ~53년 6월)	제4년차 (1953년 7월 ~12월)	합계	서비스	제1년차 (1950년 7월 ~51년 6월)	제2년차 (1951년 7월 ~52년 6월)	제3년차 (1952년 7월 ~53년 6월)	제4년차 (1953년 7월 ~12월)	합계
병기 및 동부품	15,056	16,069	64,423	15,095	110,643	건물의 건설, 개장	4,763	14,000	37,163	15,696	71,622
석탄	7,265	15,542	46,189	9,961	78,957	자동차수리	15,732	18,215	16,549	16,180	66,676
마대(麻袋)	8,702	10,187	14,786	0	33,675	하역, 창고	9,245	15,873	16,688	16,422	58,228
자동차부품	7,644	18,584	3,760	101	30,089	전신, 전화	4,488	4,155	13,703	25,840	48,186
면포	13,531	14,240	1,788	0	29,559	해상운수	14,124	9,571	10,215	5,420	39,330
트럭	22,704	331	0	0	23,035	기계수리	8,716	4,068	16,669	2,899	32,352
유안	1,293	7,261	11,139	2,520	22,213	기타건설(옥외)	6,383	2,719	9,606	4,501	23,209
목재	3,297	8,206	8,193	131	19,823	전기	0	689	19,461	5	20,155
건축용 강재	8,755	5,852	4,584	177	19,368	육상운수	15,955	1,178	1,923	862	19,918
시멘트	1,067	9,536	8,394	357	19,354	금속용기수리	1,298	2,529	9,012	544	13,383
조립가옥	2,997	7,602	7,983	0	18,581	선박수리	5,508	2,098	3,963	1,600	13,169
유자(有刺)철선	4,532	4,239	8,420	136	17,327						
모포	9,323	5,630	728	0	15,676						
화차	7,252	2,533	4,573	446	14,804						
드럼통	2,366	11,062	903	296	14,627						
유자 철조갑주 (有刺 鉄条鋼柱)	6,274	3,522	2,733	0	12,529						
모사(毛糸)	8,290	0	2,911	0	11,201						
범포지(帆布地), 동제품	4,567	3,814	327	2,176	10,883						

자료: 経済審議庁, 「特需に関する統計」.

주: 합계란의 수치가 제1년차에서 제4년차의 수치의 합과 다른 부분은 원표대로 표기했음.

에 계약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석탄, 유안, 시멘트 등이다(〈표 5〉). 이런 변화는 민생 물자나 부흥 물자의 조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2]

제3~4년차(1952년 7월~1953년 12월)에서 금속제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병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신특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완성품 무기(주로 포탄)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제3~4년차의 '병기 및 동(同)부품' 계약은 약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물자 계약고의 22.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제1~2년차(1950년 7월~1952년 6월)의 '병기 및 동부품'의 계약 합계는 약 3,100만 달러 정도로 같은 기간 물자 계약고의 6.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제1~2년차 시기에 일본에서의 공식적 무기 생산이 금지되어 있어 일본에 대한 병기의 대량발주가 곤란했기 때문이며, 병기 종류도 완성 병기가 아니라 연료 탱크, 네이팜탄용 탱크, 날개부착탄, 낙하산부착 조명탄, 로케트탄 방향장치, 철모 등과 같은 병기부품이나 부속물이 중심이었다.[23]

2) 한국부흥특수

"조선휴전 회담 재개는 특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지만, (중략) 오히려 조선 민생물자의 대량발주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特需調査』 No. 15, 1953. 4.)는 통산성의 보고처럼 한국전쟁의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부흥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한국부흥특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특수 계약액 중의 한국행(韓国行) 특수 계약액(한국으로 보내는 물자에 관한 계약, 원문에는 韓国向)과 특수 수입액 중의 ICA 관련 특수 수입의 내용을 통해 그 개략은

22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특수는 주로 '한국 작전에 수반되는 수요(직접 전투를 위한 수요, 전투력 유지를 위한 수요, 후방 정비를 위한 수요)'였으나, 나중에 '한국의 민생 원조 및 경제 원조에 수반되는 수요'와 '한국군 장비 강화에 수반되는 수요'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特需調査』 No. 11(1953. 1.)].

23 防衛生産委員会, 『防衛生産委員会十年史』, 防衛生産委員会, 1964, 76쪽.

〈표 6〉 한국전쟁 이후 한국행 특수 계약액(물자)

품목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식료 및 음료			123	(0.6)	552	(2.3)	959	(4.4)	767	(5.8)	2,971	(26.4)	634	(5.4)
섬유제품			436	(2.1)	871	(3.6)	2,487	(11.5)	74	(0.6)	214	(1.9)	4	(0.0)
목재 및 목제품			2,768	(13.6)	1,955	(8.1)	5,149	(23.8)	1,678	(12.7)	1,816	(16.1)	556	(4.7)
유지, 납			49	(0.2)	191	(0.8)	447	(2.1)	0	(0.0)	42	(0.4)	0	(0.0)
동식물제품			317	(1.6)	2,175	(9.0)	259	(1.2)	264	(2.0)	274	(2.4)	129	(1.1)
화학제품			1,082	(5.3)	876	(3.6)	862	(4.0)	430	(3.2)	504	(4.5)	133	(1.1)
금속제품			4,497	(22.1)	3,137	(12.9)	4,725	(21.9)	4,827	(36.5)	2,328	(20.7)	1,877	(15.9)
비금속 광물제품			5,613	(27.6)	8,968	(37.0)	3,266	(15.1)	2,727	(20.6)	1,924	(17.1)	2,183	(18.5)
기계			5,461	(26.8)	5,299	(21.9)	3,409	(15.8)	2,422	(18.3)	1,148	(10.2)	6,279	(53.2)
잡제품			14	(0.1)	211	(0.9)	37	(0.2)	45	(0.3)	27	(0.2)	0	(0.0)
한국행 계	11,186		20,360	(100.0)	24,235	(100.0)	21,600	100.0	13,234	(100.0)	11,248	(100.0)	11,795	(100.0)
		[10.7]		[31.0]		[35.2]		[16.5]		[19.6]		[12.6]		[12.6]
해외행 계	12,601	[12.0]	21,990	[33.4]	25,038	[36.4]	25,626	[19.5]	16,591	[24.6]	13,825	[15.5]	13,132	[14.1]
특수 계약액 (물자)	104,727	[100.0]	65,748	[100.0]	68,757	[100.0]	131,245	[100.0]	67,392	[100.0]	89,136	[100.0]	93,340	[100.0]

자료: 『特需調査』 No. 50(1956. 1.), No. 62(1656. 12.), No. 74(1957. 12.), No. 86(1958. 12.), No. 110(1960. 12.).

주: ( ) 안의 수치는 한국행 특수 계약액에 대한 각 품목별 구성비
[ ]의 수치는 전체 특수 계약액(물자)에 대한 한국행 계약액과 해외행 계약액의 비율.

짐작할 수 있다.[24] 한국행 특수 계약액은 미국의 원조자금을 이용한 미군관계기관의 발주만을 계상한 것인 반면, ICA 관계 특수 수입 중의 한국 분량은 미군관계기관 이외의 기관에 의한 발주, 예를 들면 피원조국인 한국정부 관련기관의 발주에 따른 수입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행 특수 계약액보다

24 『특수조사』에서 '한국부흥 특수'라는 명칭은 1953년 7월에서 1954년 12월까지의 '한국부흥 특수의 일본 수주실적'이란 이름으로 단 한 차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기간 중 '한국부흥 특수의 일본 수주실적'은 약 3,435만 달러였는데, 같은 기간 중 미군관계기관에 의한 한국행 특수 계약액은 약 1,547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 차이는 '한국부흥 특수의 일본 수주실적'에는 미군관계기관이 아닌 미 육군성 Chicago Procurement Office의 비료 원조에 관련되는 1,056만 7,000달러(1953년 7월~1954년 6월)의 발주와 한국 외자구매처(OPROK)의 779만 9,000달러의 발주(1954년 7월~12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特需調査』 No.38(1955. 1.); No.44(1955. 7.)].

〈표 7〉 ICA 자금에 의한 국가별 외화수취액 (1,000달러)

역년 / 국가	1955		1956		1959		1960		1961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15,502	(22.1)	30,930	(25.1)	37,241	(33.4)	40,858	(27.7)	26,745	(36.2)
타이완	3,237	(4.6)	6,217	(5.0)	11,785	(10.6)	26,555	(18.0)	14,516	(19.6)
필리핀	1,421	(2.0)	649							
베트남	29,097	(41.5)	55,849	(45.3)	37,178	(33.4)	37,180	(25.2)	14,849	(20.1)
캄보디아			9,130	(7.4)	3,723	(3.3)	5,549	(3.8)	737	(1.0)
라오스			1,812	(1.5)						
인도	14,926	(21.3)	9,008	(7.3)	7,973	(7.2)	8,268	(5.6)	4,548	(6.1)
파키스탄	2,459	(3.5)	2,170	(1.8)	6,623	(5.9)	12,670	(8.6)	3,714	(5.0)
이란	2,110	(3.0)	2,591	(2.1)	1,772	(1.6)	13,717	(9.3)	5,344	(7.2)
타이	28		4,856	(3.9)						
인도네시아	51		45							
기타	1,283	(1.8)	109	(0.1)	4,884	(4.4)	2,472	(1.7)	3,309	(4.5)
합계	70,074	(100.0)	123,376	(100.0)	111,380	(100.0)	147,269	(100.0)	73,962	(100.0)

자료: 『特需調査』 No. 63(1957.1.), No. 110(1960. 12.), No. 122(1961. 12.).

주: 합계의 수치 중 표의 숫자의 합계와 맞지 않는 것은 원자료대로 기입했음.

ICA 관련 한국 특수 수입의 금액이 더 크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우선 한국행 특수 계약의 내용을 보면 〈표 6〉과 같다. 이에 따르면 1955·1956년 한국행 특수 계약액은 전체 계약액(물자)의 30%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57년 이후에는 10% 대로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1955~1957년에는 2,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으나 1958년 이후는 1,300만 달러 정도였다. 한국행 특수의 품목별 구성을 보면 목재 및 목제품, 금속제품(레일 등), 비금속광물제품(석탄, 시멘트 등), 기계와 같은 부흥물자로 생각되는 품목이 1955년 이후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1955·1960년에는 90% 이상을 차지했다.

ICA 자금에 의한 특수 수입에서 한국 관련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 대였다(〈표 7〉). 금액으로 보면 1956년에 전년의 배 가까운 약 3,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1960년 약 4,000만 달러의 수입이 피크였다. 한국 관련 수입의 품목별 구성은 1960~1961년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데 특수 계약액

〈표 8〉 ICA 자금에 의한 외화수취액과 한국의 비중

(1,000달러) (%)

역년 / 품목	1955	1956	1960		1961		1955	1956	1960		196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식량	978	858	69	23	120	52	1.4	0.7	0.0	0.1	0.2	0.2
섬유관계	12,968	45,698	31,163	1,588	10,912	1,395	18.5	37.0	21.2	3.9	14.8	5.2
면직물	5,414	21,584					7.7	17.5				
화섬물	3,058	14,872					4.4	12.1				
목재, 종이	785	4,695	3,352	1,326	2,881	2,280	1.1	3.8	2.3	3.2	3.9	8.5
고무제품	1,431	2,983	2,292	130	1,871	160	2.0	2.4	1.6	0.3	2.5	0.6
화학제품	11,382	19,758	34,882	27,582	17,274	14,386	16.2	16.0	23.7	67.5	23.4	53.8
비료	10,439	17,210			13,757	12,749	14.9	13.9			18.6	47.7
비금속제품	8,587	15,018	11,701	2,584	3,245	1,475	12.3	12.2	7.9	6.3	4.4	5.5
시멘트	6,288	9,483			2,488	1,070	9.0	7.7			3.4	4.0
금속제품	21,341	14,892	36,576	4,126	16,725	2,975	30.5	12.1	24.8	10.1	22.6	11.1
철강소재	11,275	1,762					16.1	1.4				
철강제품	9,324	11,784					13.3	9.6				
기계류	11,069	14,900	26,670	3,272	20,601	3,945	15.8	12.1	18.1	8.0	27.9	14.8
일반기계	9,584	12,329					13.7	10.0				
철도차량	801	1,642					1.1	1.3				
선박	235	0					0.3	0.0				
잡화	1,533	4,573	564	227	333	77	2.2	3.7	0.4	0.6	0.5	0.3
합계	70,074	123,375	147,269	40,858	73,962	26,7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特需調査』 No. 63(1957. 1.), No. 110(1960. 12.), No. 122(1961. 12.).

주: 합계의 수치 중 표의 숫자의 합계와 맞지 않는 것은 원자료대로 기입했음.

과 마찬가지로 부흥물자가 중심이며, 특히 비료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8〉).

한국부흥특수는 일본이 기대한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 1955년도에서 1957년도에 걸쳐서 한국이 ICA 자금에 의해 일본에서 조달한 물자의 금액은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원조의 약 15%에 불과했는데, 통산성은 이와 같이 "(한국) 원조액에 비해 일본의 수주액이 적은 것은 근본적으로 일한 간에 우호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特需調査』 No. 84, 1958. 10.).

한국부흥특수적 성격을 띤 특수 규모가 일본이 기대한 정도에 크게 미치지 못한 이유의 하나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원조물자를 일본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이종원(李鍾元)이 상세하게 조사한 바와 같이, 한국부흥수요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발주함으로써 한국전쟁 특수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경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정부는 원조물자의 조달처에서 일본을 배제하고자 하는 저항을 집요하게 시도했다.[25] 그러나 미국의 강고한 자세에 한국정부가 굴복하여 1954년 11월 '한미회담합의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원조물자 조달에서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일본제품 보이코트는 간접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원조물자 조달에서의 특정국 차별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 2월 FOA 자금에 의한 한국경찰관 양복지(洋服地)의 국제입찰에서 한국정부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일본업자가 아닌 낙찰 순위 8위의 동화(同和)실업(벨기에 제품)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이 국제입찰은 과거 2번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두 번 다 일본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벨기에 제품이 낙찰되어 일본 측의 이의신청에 의해 FOA가 L/com(지불약정서) 개설을 거부함으로써 유찰이 된 경위가 있다(『特需調査』 No. 40, 1955. 3.).

25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関係』, 東京大学出版会, 1996, 제3장의 제4~5절 참조.

4. '일미경제협력' 구상과 신특수

1) '일미경제협력' 구상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진행되면서 한국전쟁 특수를 대신할 수 있는 '신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 '신특수'의 기대는 '일미경제협력' 구상과 관련된다. '일미경제협력' 구상이란, 미군부가 군수조달을 위해 일본의 공업생산력의 동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에 호응하여, 1951~1952년에 걸쳐 일본의 정부, 재계, 저널리즘 및 GHQ/SCAP이 주창했던 미국의 군사조달에의 협력구상으로,[26] 그 내용은 미군의 군수물자조달의 확대와 계속, 동남아시아 개발에 일본 참가, 미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생산능력 강화를 세 개의 축으로 하고 있었다.[27] '일미경제협력' 구상의 실체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미경제협력' 구상은 특수의 발주와도 관련하여 군수를 통한 일본의 경제자립을 시사하는 것으로 크게 주목 받았지만, 1951년 5월 16일의 마쿼트 성명 이후 주목할 만한 진전은 없었으며,[28] 야마모토(山本満)에 따르면 "'일미경제협력'이란 덜레스(John F. Dulles) 특사의 방일(1951년 1월~2월 - 인용자)에 의해 클로즈업된 계획, 기대, 예상, 환상, 슬로건 혹은 그 모든 것의 혼합물"로 내용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이었다.[29] 그러나 나카무라는 일미경제

26 일미경제협력 구상에 대해서는 山本満, 「冷戦と『日米経済協力』」, 『国際問題』 182号, 1975; 中村隆英, 「日米『経済協力』関係の形成」; 浅井良夫, 「1950年代の特需について(3)」, 2003을 참조.

27 浅井良夫, 「1950年代前半における外資導入問題」(中)」, 『成城大学経済学研究』 154, 2001, 31쪽.

28 経済企画庁, 『戦後経済史(総観編)』, 経済企画庁, 1957, 321쪽. 마쿼트 성명은 GHQ 경제과학국장 마쿼트가 일본정부를 대신하여 약 3주간 워싱턴에 체재하면서 일미경제협력에 대한 미 정부의 의향을 타진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일미경제협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된 내용은 ① 신특수는 모두 상업채산주의에 입각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② 따라서 일본경제의 인플레이션 재발을 충분히 방지함과 함께 적극적으로 물가를 국제가격수준까지 인하해야 하고, ③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에는 일본은 유력한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経済企画庁, 『戦後経済史(総観編)』, 365쪽). 이 성명은 신특수가 상업채산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원조와 특수에 대한 배려와 같은 일본측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었으나. 전체로서는 경제협력을 위해 미국은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中村隆英, 「日米『経済協力』関係の形成」, 293쪽; 浅井良夫, 「1950年代の特需について(3)」, 162쪽).

29 山本満, 「冷戦と『日米経済協力』」, 『国際問題』 182号, 1975, 17쪽. 야마모토는 일미경제협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일미경제협력 관념을 축으로 형성된 경제정책의 사상 혹은 계획입안의

협력의 결과물로서 "전시의 응급적인 '특수'에 필적하는 수준의, 병기 중심의 '신특수' 발주가 1951년 7월 이후에 확보되었다는 사실"[30]을 강조했다.

이하에서는 완성 병기 중심의 신특수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일미경제협력' 구상에서 제시되었던 동남아시아 개발에 관한 구상, 즉 일본이 아시아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진력하며 미국이 아시아 제국에 공여하는 원조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한다는 구상이 특수를 통해 일부 실현되었음을 보고자 한다.

2) 병기 특수

미국의 군사동원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본의 공업생산능력의 동원은 '일미경제협력' 구상의 한 축이었다. 일본의 공업력을 이용하여 일본을 미국의 군수공급원으로 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나타나지만, 1951년 2월 1일에 미국 군수생산국(Munition Board)이 작성한 '미국의 군수조달선으로서의 일본'(Japan as a Source for Supply of U.S. Military Requirement)이란 메모랜덤에서 미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군수물자 및 병기의 조달선 내지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계획의 보조자로서 일본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했다.[31]

이와 같은 미국의 구상에 일본이 군수생산에 적극적으로 커미트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32] 마쿼트 경제과학국장은 1952년 3월 14일 '항공기

발상이 강화 후의 일본의 대미, 대동남아시아 정책, 그리고 대외정책 전반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은 인정하고 있다(山本満, 「冷戦と『日米経済協力』」, 25쪽).

30 中村隆英, 「日米『経済協力』関係の形成」, 296쪽.

31 이 메모랜덤은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이 한국전쟁을 위한 조달에서, 동아시아지역의 미국 전략을 위한 산업동원으로 확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미국의 정책이 한국전쟁에 대한 대처를 계기로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봉쇄 체제의 구축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浅井良夫, 「1950年代の特需について(3)」, 136쪽). 이 메모랜덤은 도쿄의 GHQ에도 통달되었으며, 이후 GHQ와 경제안정본부에서 산업동원계획을 위한 일본의 공업생산능력에 관한 조사(이른바 Top Level 작업)가 이루어졌다.

32 일본정부는 1951년 11월 16일 스토 히데오(周東英雄) 경제안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미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는 1952년 2월 12일 「자립경제의 달성과 경제협력의 촉진」이라는 제목의 각서를 마쿼트 경제과학국장에게 송부하여, 일본측은 군수생산에 전면적으로 커미트할 의지를 표명했다(中村隆英, 「日米『経済協力』関係の形成」, 299~300쪽). 이러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은 GHQ만이 아니라 '재군비'에 적극적이었던 일본 재계의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와 병기의 조건부 생산허가'를 지령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정부가 4월 8일부로 통산, 운수, 문부, 농림 4성의 공동성령, '병기, 항공기 등의 생산제한에 관한 건'의 일부 개정을 함으로써,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무기, 항공기의 생산 및 수리가 재개되어, 그 제일보로서 1952년 5월 3일 JPA로부터 42인치 박격포 528문이 오사카기공(大阪機工)에 발주되었다.[33]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일본에서 무기생산이 실제로 재개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의 1950년 8월부터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생산된 무기는 완성병기가 아닌 병기부품이나 부속물이 중심이었던 반면, 평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새로 등장한 병기 특수는 탄약을 중심으로 하는 완성병기였다. 이러한 완성병기 중심의 병기 수요는 한국전쟁의 종료와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쟁 특수를 대신할 '신특수'로 기대되었다.

신특수는 한국전쟁 특수와 달리 전쟁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적이며 계획성 있는 수요로 이해되었다. 게이단렌(経団連)은 신특수의 특징으로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극동 아시아 자유국가들의 방위계획에 크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상 항상적이며, 긴급성이 조선특수와 같이 강하지 않은 대신 본질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34]을 강조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서도 신특수는 ① "종래의 특수는 역무의 공급을 제외하고 거의 조선 작전과 관계 있는 전투용 소모물자가 중심이었지만, 신특수는 완성 병기가 주이며 조선동란과 직접적으로는 반드시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② "미군 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으로서 일본 및 아시아 제국에 대한 무기 대여 혹은 병기 원조에 제공"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었다.[35]

이와 같이 신특수를 항상적이고 계획적인 수요로 이해한 배경에는

'일미경제협력' 구상과 관련된 일본 재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中村隆英, 「日米『経済協力』関係の形成」, 291쪽; 浅井良夫, 「1950年代の特需について(3)」, 151~155쪽; 남기정, 「한국전쟁 시기 특별수요의 발생과 '생산기지' 일본의 탄생」, 268~269쪽.

33 防衛生産委員会, 『防衛生産委員会十年史』, 76쪽.

34 経団連事務局, 「新特需の意義と経済協力の構想について」, 『経済連合』, 1952년 8월.

35 公正取引委員会事務局経済部調査課, 『兵器特需の現況』, 1953, 2~3쪽.

MSA 원조[36]의 역외조달방식을 통해 신특수의 확보가 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다. 역외조달이란 피원조국에 공여하는 원조물자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피원조국 내지 다른 우호국에서 조달하여 피원조국에 공여하는 방식이다. 일본정부 및 재계는 미국원조자금을 이용한 역외조달을 통해 제3국에 무기를 공여함으로써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특수 수입의 확보), 자국의 방위산업의 육성을 기대했다.[37]

기대한 바대로 역외조달방식에 의한 대규모의 신특수(병기 특수)가 1952년 5월부터 발생했다. 1952년 7월~53년 6월 사이에 포탄을 중심으로 약 6,400만 달러 규모의 병기 특수는, 1951년 7월~1952년 6월 사이에 발생한 병기 수요 약 1,600만 달러의 4배가 넘었다(〈표 4〉). 병기수요는 1953년 하반기에서 1954년 상반기에 걸쳐 주춤했으나 1954년 5월부터 다시 활발해져 8월까지 약 6,3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특수가 발생하였다. 특수 계약액에서 차지하는 병기 수요의 비중은 1954년에 전체 계약액의 절반을 넘는 53.6%에 달했다(〈표 9〉).

이러한 대규모의 병기 특수 발생은 일본 군수산업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일본정부 및 재계에 불러 일으켰다. 통산성은 "병기발주가 대량으로 이루어져(중략) 드디어 군수공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립에 역점이 두어질 것으로 추측된다"(『特需調査』 No.13, 1953. 3.)고 군수공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재계 및 일본정부의 희망과 달리 병기 관련 특수는 지속되지 않았다. 1955년 초에 이르러 미국의 1955년 회계연도에서 일본에의 탄

36 MSA 원조란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MSA, 1951년 10월 성립)에 근거하여 '상호안전보장계획'(Mutual Security Program, MSP)이란 명칭하에 제공된 미국의 대외원조를 의미한다. 그것은 기능별로 ① 상호방위원조(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 MDAP), ② 직접병력지원(Direct Forces Support), ③ 방위지원(Defense Support), ④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 ⑤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⑥ 기타(유엔의 제기금 또는 아시아개발기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③ 이하의 범주가 경제원조이다. ①과 ②는 국방성에서 관할하였으며, 경제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③ 방위지원은 대외활동국(FOA) 또는 국제협력국(ICA)의 관할하에 FOA원조, ICA원조 등으로 불렸다.

37 防衛生産委員会, 『防衛産業委員会十年史』, 43~44쪽.

약류 발주가 겨우 1,000만 달러 정도로 격감할 것이 점차 확실시됨에 따라 일본정부와 재계는 탄약류의 생산재개에 관해 미국 측과 절충을 도모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미국의 1955년도 예산에 탄약류의 일본 발주는 800만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이로써 탄약류의 병기 특수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표 9〉에 보이는 1956·1957년의 병기 수요는 탄약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연락기)와 구축함 발주에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탄약류의 병기 특수가 실질적으로 1955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게 된 것에는 일본정부의 방위생산의지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55년에 있었던 탄약류 계속 생산에 관한 절충과정에서, 미국 측 담당자였던 미 국방성 예산국차장은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특수 발주를 통해 일본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 일본정부는 태만하고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돌연 발주가 중지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하지만, 자조, 자력이라고 하는 일본정부로서 무언가의 의지 표시가 보여지지 않는 한 미정부로서도 어려운 입장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였다.[38] 일본이 자체적인 방위력 육성에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병기 발주를 일본에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탄약류 중심의 신특수에 의해 비로소 일본에서 병기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미군의 병기 발주가 끊어진 상황에서 방위청 수요만으로는 일본의 방위산업의 전면적 부활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특수에 의존하여 병기생산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군수산업에서 잇달아 철수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병기생산의 사내 생산비율을 급속히 저하시키면서도 방위생산을 포기하지 않았다.[39] 그런 의미에서 특수가 '군수공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립'이 될 것이라는 통산성의 기대는 실현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8 防衛生産委員会, 『防衛生産委員会十年史』, 130쪽.

39 사와이는 일부 병기생산기업이 병기생산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방위생산을 국가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영자의 판단 외에 방위생산기업을 소관하는 통산성, 방위장비품의 사용자인 방위청, 경단련 방위생산위원회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등을 들고 있다(沢井実, 「特需生産から防衛生産へ」, 59쪽).

5. MSA 원조와 특수

일본이 미국과 MSA 협정[40]을 체결한 후 미국 원조물자의 역외조달이란 수단을 이용한 특수가 특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하에서는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방위지원원조를 포함)를 이용한 특수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군사원조와 특수

탄약류를 중심으로 한 병기수요는 1955년으로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MSA 군사원조를 이용한 군수품의 역외조달에 의한 특수는 1950년대 후반에도 계속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특수 계약액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9〉에 따르면, 1956년과 1957년에 각각 약 188만 달러와 1,914만 달러의 병기 계약이 있었는데, 1956년에는 항공기 발주, 1957년에는 구축함 발주가 있었다. 미군은 LM-1형 연락기 27기를 역외조달로 후지중공업으로부터 구입하여 1956년(24기)과 1957년(3기)에 걸쳐 육상자위대에 공여했다.[41] 1956년의 약 188만 달러의 계약은 LM-1형 연락기 24기와 부품을 포함한 122만 6,000달러의 발주를 포함한 것이다(『特需調査』 No. 59, 1956. 9.). 1957년에는 역시 미군의 역외조달로 미군이 구축함 2척을 일본에서 건조하여 일본에 공여하는 계약(1,868만 달러)이 맺어짐으로써 약 1,900만 달러의 병기 특수가 발생했다(『特需調査』 No. 69, 1957. 7.).

MSA 군사원조를 이용한 역외조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군용 차량 및 자동차 부속품의 조달과 군용 차량의 수리 서비스였다. 1957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대규모의 차량 및 자동차 부속품의 특수계약이 발생

40 상호안전보장법(MSA)에 기초한 군사원조, 경제원조에 관해 미국과 원조대상국 사이에 체결되는 협정이 MSA 협정이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1952년 중반부터 MSA 협정 논의가 진행되어 1954년 3월 8일에 협정이 조인되었다. MSA 협정 논의에 대해서는 石井晋, 「MSA協定と日本: 戦後型経済システムの形成(1), (2)」, 『学習院大学経済論集』 第40巻 第3号·第40巻 第4号, 2003, 2004, 참고.

41 防衛生産委員会, 『防衛生産委員会十年史』, 198쪽.

하였다(〈표 9〉).

1957년에는 일본 방위청에 공여되는 차량 약 9,000대(약 3,300만 달러)의 납입계약과 한국 및 캄보디아 소재의 차량부품 3만 8,000점의 수리계약(약 1,083만 달러)이 성립되었다(『特需調査』 No. 69, 1957. 7.). 이 외에 차량수리 5개년 계획에 근거한 동남 아시아 소재의 차량수리, 신차량 교체 및 각종 부품의 보급과 관련된 계약이 1960년까지 발생했다. 1958년에는 재일미군조달국(APA)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4,748량의 군차량조달에 따른 특수 약 1,800만 달러가 발생했으며(『特需調査』 No. 89, 1959. 3.), 1959년과 1960년에는 역시 동남아시아로 보내지는 각각 약 4,000대와 1만 7,000대의 차량 및 부품의 역외조달이 있었다(『特需調査』 No. 110, 1961. 2.).

〈표 9〉에 따르면, 탄약류 중심의 병기 수요가 사라진 후 1955·1956년의 특수 계약액(물자)은 1954년의 약 1억 2,0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 대로 크게 줄었으나, 1957년의 계약액은 약 1억 3,000만 달러로 대규모 병기수요가 있었던 1954년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다시 크게 늘었으며, 1959·1960년의 계약액도 9,000만 달러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에도 매년 1억 달러 전후의 특수 계약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군사원조물자의 역외조달에 의한 바가 컸다. 특히 1959·1960년은 6,000만 달러 전후의 차량 및 자동차부속품이 발주되어 특수 계약액(물자)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2) ICA원조와 특수

특수 수입에서 ICA 등 수입은 미국의 경제원조자금을 이용하여 피원조국에 공여하는 원조물자를 일본에서 역외조달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을 의미한다. 〈표 3〉에 따르면, 특수 수입액에서 ICA 등의 비율이 1955년부터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4년에 특수 수입액의 2.8%에 불과했던 ICA 등 수입은 1955년에 12.7%, 1956년에 20.9%로 증가하여 1960년까지 2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1956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하여 엔 세일이나 미군예금납입의 감소를 상쇄하고 연 4~5억

〈표 9〉 품목별 특수 발주액과 구성비(1954~1960년) (1,000달러, %)

품목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료 및 음료	7,942	(6.7)	5,751	(8.9)	6,789	(9.9)	7,463	(5.7)	7,622	(11.9)	7,658	(8.6)	6,718	(7.6)
직물 및 섬유제품	1,277	(1.1)	3,512	(5.4)	2,707	(3.9)	4,903	(3.8)	1,348	(2.1)	1,789	(2.0)	896	(1.0)
목재 및 목제춤	6,731	(5.7)	8,807	(13.6)	8,754	(12.7)	12,396	(9.5)	5,303	(8.3)	4,689	(5.3)	1,546	(1.8)
동식물산품 및 제품	748	(0.6)	1,184	(1.8)	3,138	(4.6)	4,763	(3.7)	3,756	(5.9)	2,760	(3.1)	2,686	(3.1)
유지, 납(蝋)	184	(0.2)	166	(0.3)	397	(0.6)	1,005	(0.8)	66	(0.1)	52	(0.1)	0	(0.0)
화학제품	3,175	(2.7)	3,920	(6.1)	4,709	(6.9)	4,019	(3.1)	2,463	(3.9)	2,107	(2.4)	2,443	(2.8)
금속 및 금속제품	8,239	(7.0)	9,904	(15.3)	8,992	(13.1)	13,013	(10.0)	9,245	(14.5)	4,584	(5.2)	3,858	(4.4)
비금속광물 및 제품	19,581	(16.5)	14,499	(22.4)	19,163	(27.9)	14,572	(11.2)	6,302	(9.9)	4,324	(4.9)	3,908	(4.4)
(석탄)	15,141	(12.8)	9,807	(15.2)	13,574	(19.7)	7,030	(5.4)	823	(1.3)	470	(0.5)	22	(0.0)
(시멘트)	3,355	(2.8)	3,384	(5.2)	1,969	(2.9)	4,003	(3.1)	2,799	(4.4)	1,743	(2.0)	2,597	(3.0)
기계	6,449	(5.5)	8,394	(13.0)	10,665	(15.5)	47,336	(36.3)	26,863	(42.1)	59,518	(67.2)	64,080	(72.8)
(자동차부품)									3,894	(6.1)	3,750	(4.2)	7,253	(8.2)
(차량)					147	(0.2)	26,178	(20.1)	14,406	(22.6)	48,254	(54.5)	45,158	(51.3)
병기	63,435	(53.6)	8,032	(12.4)	1,887	(2.7)	19,143	(14.7)	0	(0.0)	0	(0.0)	0	(0.0)
잡제품	560	(0.5)	475	(0.7)	1,530	(2.2)	1,795	(1.4)	850	(1.3)	1,106	(1.2)	1,862	(2.1)
합계	118,321		64,644		68,731	(100.0)	130,408	(100.0)	63,818	(100.0)	88,587	(100.0)	87,997	(100.0)
서비스														
건설	35,537	(35.3)	26,171	(29.4)	20,711	(24.2)	28,220	(33.0)	14,333	(23.2)	12,361	(20.6)	13,028	(25.4)
수리개조 및 재포장 등	28,905	(28.7)	25,690	(28.8)	28,238	(33.0)	21,108	(24.7)	11,097	(18.0)	12,620	(21.0)	15,053	(29.3)
수송, 창고업 및 하역 등	13,630	(13.5)	8,347	(9.4)	11,730	(13.7)	14,395	(16.9)	15,641	(25.3)	13,644	(22.7)	7,685	(15.0)
공익사업	19,097	(19.0)	26,252	(29.5)	22,740	(26.6)	19,247	(22.5)	18,808	(30.4)	19,469	(32.4)	12,342	(24.0)
기술제공	1,552	(1.5)	1,758	(2.0)	1,005	(1.2)	1,091	(1.3)	680	(1.1)	1,178	(2.0)	2,500	(4.9)
잡 역무	2,018	(2.0)	673.0	(0.9)	1,202	(1.4)	1,345	(1.6)	1,240	(2.0)	771	(1.3)	727	(1.4)
합계	100,739	(100.0)	88,891	(100.0)	85,626	(100.0)	85,406	(100.0)	61,799	(100.0)	60,043	(100.0)	51,335	(100.0)

자료: 通産省, 『特需調査』 各号로부터 계산.

주: 금액이 〈표 2〉의 특수 계약액 수치와 다른 것은 발주액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임. 자동차부품 및 차량 계약의 1954·1955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음.

달러의 특수 수입액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ICA 자금 관련 특수 수입을 국가별로 보면(〈표 7〉),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3국에 대한 물자조달로 얻은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1955·1956년에 전체 ICA 자금 관련 수입의 40%를 넘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60·1961년에도 한국 다음의 20% 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ICA 자금으로 일본에서 조달하는 물자는 섬유관계, 화학제품(비료), 비금속제품(시멘트), 금속제품, 기계류가 많았다(〈표 8〉).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화학제품(주로 비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과 섬유제품의 비중은 크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정부는 미국 원조자금을 이용한 동남아시아의 물자조달이 앞으로의 주된 특수 수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산성은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3국에서의 물자 매입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미국 측에서 동남아시아에 공여한 기계류 부품을 일본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중략) 한계에 달한 국내 특수에 대신해서 아시아 국가 대상 특수가 점차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최근 특수의 중점이 재일미군 유지를 위한 매입(국내 특수)에서, 미국의 대외원조자금에 의한 제3국 대상 매입 즉 '선적(船積) 특수'라고 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이행"하고 있는 현상을 '특수 바다를 건너간다'고 표현했다(『特需調査』 No. 49, 1955. 12.).

동남아시아 특수의 증가는 특수 수입의 증대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원조물자 공급기지로서의 일본의 지위를 높이고 나아가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56년에 발발한 수에즈 분쟁 이후 일본에서의 물자조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래부터 미국에서는 일본의 공업력을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수에즈 분쟁에 의해 더욱 '조달 소스'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한 것 같다. 미국의 대외원조의 중심은 여전히 아시아에 놓여져 있으며 계획적인 원조의 실시에는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일본이 원조물자의 공급지로서 극히 유리해지고 있다(『特需調査』 No. 65, 1957. 3.)."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나아가서

"특수에 의해 일본의 상품과 기술에 대해 실적을 올려 가는 것이 장래의 수출시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특수 관련 업체에 대해 수출업체에 버금가는 우대조치 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特需調査』 No. 70, 1957. 8.).

1957년에 나타난 "특수에 의해 일본의 상품과 기술에 대해 실적을 올려 가는 것이 장래의 수출시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1952년 당시의 일미경제협력 구상에서 나타난 동남아시아 개발 구상을 상기시킨다. 미국의 대 동남아시아 원조를 이용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소비재 등의 물자 구입과 동남아시아의 일본에 대한 원료공급이라는 동남아시아 개발 구상의 일단(一端)이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 ICA 원조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CA 특수 수입은 1960년부터 미국의 달러방위정책이 실행되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미 국방성이 1960년 10월 3일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에 수반하는 금 유출을 국방 지출의 면에서 저지하기 위해 역외 군사발주를 대폭 삭감하는 지령을 내린 데 이어서(『特需調査』 No. 108, 1960. 10.), 동년 12월 5일 미국무장관이 ICA 자금에 의한 물자조달에서 일본을 포함 19개 국가를 제외시키는 지령을 함으로써(『特需調査』 No. 109, 1960. 11.), 일본의 ICA원조에 의한 특수 수입은 1961년부터 대폭 감소하고 1963년의 약 100만 달러를 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6. 특수 의존에서 특수 탈각으로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일본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자립'의 달성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 1월에 발표된 『자립경제계획』(自立経済計画)에서 경제자립은 "단지 국제수지의 균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면서 동시에 가능한 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능케 하

는 내용"을 의미했다.[42]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수입의 증대가 필수적인데, 당시의 취약한 경제 상황에서는 수입이 증대되면 곧바로 국제수지의 적자가 확대되어 긴축정책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대하는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외화의 확보가 불가결했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특수는 당시 외화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액이었으며(〈표 10〉), 일본은 늘어난 외화 수입(收入)으로 수입(輸入)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한국전쟁 특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특수(이른바 '신특수')의 확보 혹은 외자도입이 모색되었는데, 바로 1951년에서 1952년에 걸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미경제협력' 구상을 둘러싼 일본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일미경제협력' 구상의 성과로서 1952~1955년의 탄약류 중심의 병기 특수가 발생했으나, 그 이상의 새로운 특수의 확보나 외자 도입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43] 이에 따라 1953년부터 특수 의존 내지는 외자 도입을 통해 일본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정하고 수출우선주의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44]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장기경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립5개년계획'(1955년 12월 각의 결정)은 특수 의존에서의 탈각과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자립 방향을 명확히 했다.[45] 아사이(浅井)에 따르면 이 계획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한국특수 시기에 주장되었던 수입우선주의가 사라지고 수출진흥이 '경제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 있는 수단으로

42 林雄二郎, 『日本の経済計画』, 東洋経済新報社, 1957, 99쪽.

43 당시의 일본정부에 의한 외자도입 시도에 대해서는 浅井良夫, 「1950年代前半における外資導入問題(上), (中), (下)」, 『成城大学経済学研究』 153, 154, 156, 2001이 자세하다.

44 浅井良夫, 「1950年代前半における外資導入問題(下)」, 199쪽; 石井晋, 「MSA協定と日本: 戦後型経済システムの形成(2)」, 303쪽.

45 [경제자립5개년계획]의 성립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浅井良夫, 「「経済自立5か年計画」の成立(1), (2), (3), (4), (5)」, 『成城大学経済学研究』 145·146·148·149·150, 1999~2000이 자세하다.

〈표 10〉 외화 수취 및 지불 (100만 달러)

연도	수취					지출				특수 제외수지
	무역	무역 외		합계(B)	A/B(%)	무역	무역 외	합계	수지	
		계	內 특수 (A)							
1950	920	389	253	1,309	19.3	962	55	1,017	292	39
1951	1,405	1,003	677	2,408	28.1	1,658	185	1,843	565	−112
1952	1,168	939	801	2,107	38.0	1,790	224	2,014	93	−708
1953	1,245	917	761	2,162	35.2	2,243	232	2,475	−313	−1,074
1954	1,602	764	590	2,366	24.9	1,767	255	2,022	344	−246
1955	2,095	745	570	2,840	20.1	1,956	348	2,304	536	−34
1956	2,495	842	587	3,337	17.6	2,782	516	3,298	39	−548
1957	2,819	819	529	3,638	14.5	3,347	588	3,935	−297	−826
1958	2,728	846	489	3,574	13.7	2,488	539	3,027	547	58
1959	3,312	879	464	4,191	11.1	3,044	740	3,784	407	−57
1960 (4~9월)	1,844	434	280	2,278	12.3	1,848	369	2,217	61	−219

자료: 『特需調査』 No.109, 1960. 11. 원 자료는 日本銀行為替統計.

주: ICA 수입은 1960연도부터 무역(수출)으로 산입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종래대로 특수 수입으로 산입해 계산하였음.

자리매김되었다는 점이다.[46]

특수 없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립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는 상당한 규모로 계속 발생하여 계획이 특수 제로를 상정했던 1960년에도 5억 달러가 넘는 특수 수입이 있었다. 고도성장이 시작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특수 수입은 1955년에 외화 수취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959년까지 계속 10% 이상을 차지했다(〈표 10〉). 특수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국전쟁 발발 시에 비해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46 浅井良夫, 「「経済自立5か年計画」の成立(5)」, 81쪽.

통산성 특수 담당자는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특수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불안정한 특수 의존으로부터의 탈각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립5개년계획을 비판하고 특수는 안정적인 외화수입원이며 특수 탈각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업자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특수 담당자가 특수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재일미군 병력 수와는 무관한 대외원조 조달과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특수의 주 내용이 될 것이며, "미국의 대외원조는 미국의 세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 시책으로, 간단히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주류군 고유의 조달이 주였던 때에는 '특수 탈각'도 의의가 있었지만, 대외원조가 주가 되고 있는 현재의 특수는 금후 일본의 경제진출의 기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것과 같은 보호우대책을 포함한 법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特需調査』 No. 68, 1957. 6.).

그러나 미국의 대외원조가 "반항구적으로 계속"(『特需調査』 No. 70, 1957. 8.) 될 것을 상정하고 미국 원조자금에 의한 안정적 특수 수입을 기대했던 통산성의 예상은 일찌감치 1958년부터 그 실현이 불확실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이 불황대책으로 1958년부터 역외조달분을 미 본국 조달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ICA 수입이 감소경향을 보이자, "군사원조관계 특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경제원조관계 특수는 전도가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特需調査』 No. 86, 1958. 12.)고 하고, "ICA 관계 수입은 (중략) 미국의 국내경제사정에 의한 정책에 좌우되는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공급국이 될 기회를 많이 기대할 수는 없다"(『特需調査』 No. 89, 1959. 3.)는 등 기존의 낙관적 예상을 이미 수정하고 있었다. 결국 1960년에 달러방위정책이 실시되면서 "AID(ICA의 후신-인용자) 자금에 의한 매입 기대는 위험"(『特需調査』 No. 122, 1961. 12.)한 것이 되었으며 실제로도 AID 자금에 의한 특수 수입은 1963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미국 원조정책의 변경으로 특수 의존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특수 탈각은 목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다행히 일본경제는 경제자립5개년계획이

상정했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을 이루어 내고 수출도 크게 신장함으로써 수출에 의한 자립경제의 실현에 가까이 다가갔다. 특수 의존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시점에서 특수의 필요성도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7. 맺음말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등장한 특수는 1950년대를 통하여 일본경제를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였다. 특수는 무엇보다도 거액의 외화획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성장을 촉진했다. 특히 1950년대 초기의 특수로 일본은 대량의 원료 수입만이 아니라 합리화투자를 위한 신예 기계 등의 수입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성장을 준비했다.

한국전쟁의 휴전에 따른 특수 감소가 일본의 경제성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전쟁 특수를 대신할 수 있는 신특수의 확보가 모색되었다. 그 결과 미국 MSA 원조의 역외조달을 수단으로 하는 특수를 확보함으로써 1950년대 후반에도 연 4~5억 달러에 달하는 특수 수입이 가능했다. 일본정부는 1955년 경제자립5개년계획에서 특수 의존에서의 탈각과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운용을 명확히 했으나 국제수지의 제약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1950년대 후반에 4~5억 달러 규모의 외화수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수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이득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속에 일본이 깊숙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얻어졌다. 한국전쟁 시 일본은 말 그대로 전쟁의 후방공급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거액의 특수 수입을 획득했다. 평화조약 발효 후에 일본은 미국의 원조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수 수입 확보를 꾀했다. 1954~1955년에 발생한 탄약류 중심의 병기특수는 미국의 군사원조물자를 일본에서 역외조달한 것이었으며, '일미경제협력' 구상의 일부가 이로써 실현되었다. 군사원조의 역외조달을 이용한 특수 확보는 탄약류 병기수요가 없어진 후에도 연락기, 구축

함의 발주와 군사용 차량교체 및 수리의 형태로 계속되었다.

일본은 군사원조만이 아니라 ICA를 통한 경제원조의 역외조달을 이용하여 상당한 특수 수입을 확보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원조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동남아시아 원조물자의 공급기지로서의 일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원조물자의 조달이 수출시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되었다. '일미경제협력' 구상의 한 축이었던 일본에 의한 동남아시아 개발구상이 동남아시아 원조물자의 일본 조달이라는 형태로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었다.

한국전쟁에 의해 일본은 거액의 특수 수입을 얻었지만 한국부흥을 위한 원조물자 조달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것은 원조물자를 일본에 발주하는 것에 대한 한국정부의 저항 때문이었다. 원조물자의 발주선에서 특정국, 즉 일본을 제외하고자 한 한국정부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무산되었으나, 한국정부는 여전히 비공식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원조물자의 일본 발주를 회피하고자 했다.

'군사관계와 경제관계의 결절점'으로서의 특수의 구체적 내용은 대체로 위와 같은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수라는 경제적 이득을 확보했다. 미국은 특수라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냉전구조하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경제력을 육성했다. 1950년대의 특수는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의 접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에는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달러방위정책에 따른 역외조달의 중지는 특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반면 특수는 한국과 일본 및 미국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했다. 한국전쟁 특수 자체가 한국의 천문학적인 물적·인적 손실을 대가로 하여 발생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부흥특수(미국의 대한원조물자의 일본조달)는 한국 측에서 볼 때 또 다른 형태의 일본경제로의 종속을 의미했다. 특수에서 첨예하게 나타나는 미일 이해관계의 일치와 한미 및 한일 간의 갈등은, 한국을 전방의 군사기지, 일본을 후방의 보급기지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지역적 비틀림(ねじれ)'[47]의 일 측면을 명료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47 李鐘元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권의 뉴 룩(New Look) 전략이 구상한 '동맹체제'의 모순을 그 내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점을 1950년대의 한미 관계에 적용하여, 뉴 룩 전략의 '지역적 비틀림'과 '시간적 비틀림'이란 두 측면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지역적 비틀림'이란 미국의 아시아 정책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일종의 분업적 상호관계의 틀을 부여받음으로써 뉴 룩 전략 중의 군사우선과 경제중시라는 두 개의 요청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구조가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분업이라는 형태로 현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이젠하워 정권의 전반기에 아시아정책이 전반적으로 군사 우선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대일정책이 경제중시 방향으로 전환한 것과 병행하여, 한국 등의 다른 아시아의 '전초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우선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경제발전에의 제약 요인으로서 작용했다. 또 미국의 대아시아 경제정책 자체가 가지는 수직적 지역분업 지향성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업화 억제 방침이 취해지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분업체제의 편입이 대한정책의 다양한 방면에서 강제되었다. 이 글에서 설명한 ICA 자금을 이용한 원조물자의 조달을 둘러싼 한일, 한미 갈등은 이러한 지역적 비틀림의 구체적 표출형태라고 할 수 있다(李鐘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関係』, 8~9쪽).